

장성군, 내달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기간 운영

여름철 수질오염 막고 청정환경 조성 '온 힘'

장성군이 여름철 수질오염을 막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한다. 이에, 군은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장성군은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

설 일제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7월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 감시와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8월 말에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시설복구와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적인 오염 시설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

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계도-단속-복구의 3단계 특별감시체계를 운영해 효과적으로 환경오염 요소를 차단·개선하겠다"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반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남창계곡과 백양

사, 황룡강, 방장산, 장성호관광지 등 10개소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간 기동청소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9월 18일까지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생활 쓰레기 수거 횟수도 확대했다. 장성군은 기존 주 2회 수거에 이어 주말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악취와 해충 발생을 경감시키고 있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 개미산 일대 문화관광벨트 조성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읍 개미산 일대에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

군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하나로 개미산 일대에 문화·관광·여가 벨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미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자연환경과 주변 자원을 살린 공간 ▲화순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매력력을 주는 공간 ▲지역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미산 전망대는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로 설치한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화순의 역사·문화·관광 등 전시 공간, 3층은 화순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을 조성해 화순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100개의 계단을 설치해 건강과 재미를 추구하도록 이색 건강 데크 계단

(480m)를 만들고, 전망대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한 상징 조형물도 설치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경관조명, 보행 약자를 위한 개미산 둘레길, 차량을 이용해 전망대를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600㎡)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접하고 있는 화순천에 조성할 화순천 꽃강길 생태공원의 음악분수대, 인도교, 들국화정원, 생태학습장, 나드리목 캠퍼스 등 생태문화공간과 안양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문화복지 공간과 연계해 화순의 복합 문화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로 화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효경 기자

영광,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5일,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특보 최초발효일자가 12일 빨라지는 등 이른 폭염이 찾아와 당분간 매우 무덥고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도로 살수 작업을 통해 도로 가열을 해소해 주변 체감 온도를 낮추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 및 도로노면 청소효과를 통해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살수차 운영은 폭염특보(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발효 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며, 영광읍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께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작업 등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및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자주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선제적 폭염대응을 위해 6월에 취약계층에 폭염대응물품(쿨방석)을 배부했고 폭염저감시설(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했다.

/이경률 기자



담양군에 따르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수급자,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백동 주공 LH 2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톡톡 LH(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담양군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수급자,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백동 주공 LH 2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톡톡 LH(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우리동네 마음상담소'를 통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 자살행동 척도검사, 불면증 척도검사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제공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고위험군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치료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 19일 우울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해 주민들의 호평을 얻었다.

'행복톡톡 LH(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백동 주공 LH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되며 추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장진성 기자

나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당부

30초 이상 손 씻기·음식 익혀먹기 등 수칙 안내

나주시 보건소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환자·보급자가 조리한 음식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 시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한다.

2급 및 3급 법정 감염병은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8종, 4급 법정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20종이 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증식이 활발해지고 감염

병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청·보건소 누리집과 SNS를 통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습식 충분히 익혀먹기 스톱 끓여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생선·육류·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서현승 보건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취사 행위에서의 위생 부주의로 감염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흐르는 물에 자주 손을 씻고, 음식은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